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	2022년 2월 16일(수) 총 3매		
담당 부서	문화유산과	담당자	• 문화유산정책팀장 오동철 ☎440-4471 • 담당자 한규복 ☎440-4473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형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‘종합정비계획’ 만든다

- 14일, 인천형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TF 제3차 회의 개최 -
- 올 하반기 ‘인천형 근현대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’ 실시 예정 -

인천광역시는 14일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‘인천형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TF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는 안영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2차 회의 이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.

특히, 그 간 근현대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많은 토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돼 있지않은 한계점을 인식하고, 향후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,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

따라서 시는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자문을 참고해 상반기 중 용역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「인천형 근현대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」을 실시할 계획이다.

해당 용역에는 인천시 전반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조사 및 목록화, 문화유산 가치평가 및 기록화, 등록문화재 확대 발굴 및 제도 보완, 미래유산제도 도입, 조례 제정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유형별·시기별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·활동 방안에 대해 수립 예정이며, 특히 2019년 시·도에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시민 중심의 참여형 문화재 보호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.

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“우리 시는 개항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지로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”며 “타 시·도 사례 및 제도 보완, 조례개정 등 근·현대를 포함한 문화유산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시는 지난해 등록문화재 6건을 등록*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도적·모범적으로 제도를 정착하였고 올해도 등록문화재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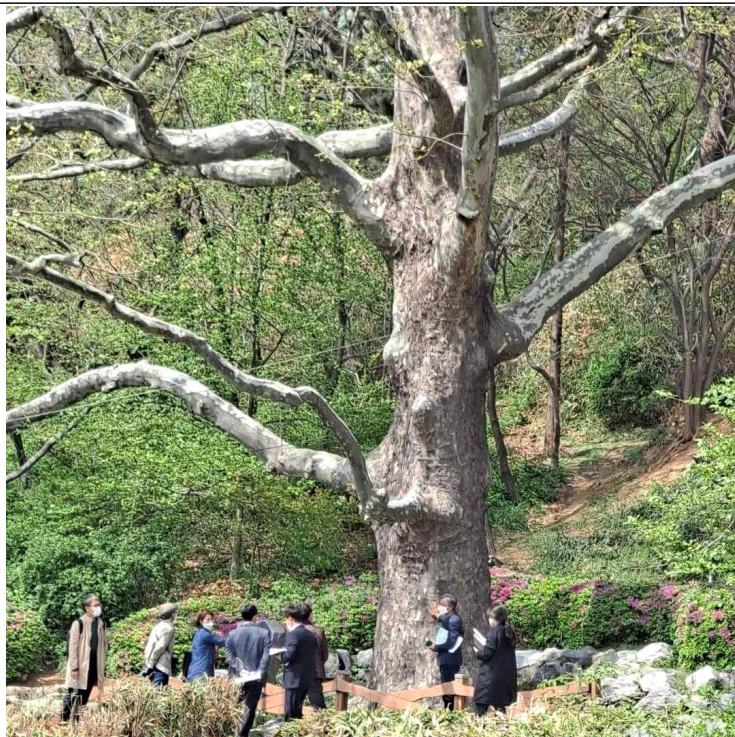
* 시 등록문화재 현황(6건) : 송학동 옛 시장관사(1호), 자유공원 플라타너스(2호), 수인선 협궤 객차(3호), 협궤 증기기관차(4호), 구 미스이(三井)물산 인천지점(5호),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(6호)

사진

인천시 등록문화재 사진



인천시 등록문화재 제1호 : 송학동 옛 시장관사



인천시 등록문화재 제2호 : 자유공원 플라타너스